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 멈춰라”

김광수 의원, 국민연금공단 국감서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등
성공적 정착 힘 모아줘야
주요 회의, 전주서 개최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정치권과 언론의 계속되는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를 겨냥 “오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흔들기에 종지부를 찍고 이제는 기금운용본부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줘야 할 때”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또한, 기금운용본부의 성공적 정착에 여야가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만드는 국정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은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과 관련 팩트 체크도 없이 ‘논두렁본부, 전주 리스크, 축산 분뇨’ 등 의도된 낮은 수준의 모욕적 언사를 총동원하며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을 흔들며 대고 있다. 특히,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계획으로

서울에서 내려오지 않으려는 금융모피아들과 각 지역들의 기관 유치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논두렁 본부, 전주 리스크, 축산 분뇨를 운운하며 모욕적 언사를 총동원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길인가”고 강력질타하며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서울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흔들기는 국민차원에서, 국민들 누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다”며 “실현가능성 없는 서울타령 그만하고 기금본부가 잘 정착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 받은 ‘국민연금공단 회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단 이사장이 위원장인 리스크관리위원회 회의, 기금운용직 채용면접이 전주 분사 개최건수가 전무했고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회의는 29회 중 5번만 본부에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기금운용본부의 주요 회의를 본부에서 개최하는 것이 성공적인 정착과 조직의 안정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대 대학원 강동규씨
美 화학회지 표지논문 선정



전북대 학교는 강동규 대학원생(고분자나노공학과·사립, 지도교수 정광운)의 논문이 미국화학회에서 발간하는 ‘ACS Applied Materials & Interfaces(IF=8.097, Top 7.82%)’ 10월호 표지논문으로 선정됐다.

대학원생의 주저자 논문이 해외 유수 학회 저널을 대표하는 표지 논문으로 게재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강 씨는 가공성이 우수하면서 열 전도도까지 우수한 고분자 소재를 개발, 세계적 저널로부터 연구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낮은 열전도를 보이는 기존의 고분자 소재를 이용해 복합재료를 만들면 열 전달 복합재료의 열 전도 특성이 현저히 저하된다.

이러한 단점 개선을 위해 강 씨는 새로운 메조전 분자를 이용해 가공성이 우수하면서도 열전도도가 탁월한 고분자 소재 개발에 나서 성공했고, 이를 세계적 저널에 게재하며 주목을 받았다.

강 씨는 새로운 메조전 분자를 이용해 가공성이 우수하면서도 열전도도가 탁월한 고분자 소재 개발에 나서 성공했고, 이를 세계적 저널에 게재하며 주목을 받았다. /장은성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23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연금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광수 의원이 질문을 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단 하나의 씨앗, 미래를 바꾼다’

국제종자박람회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서 개막... 26일까지

‘제2회 국제종자박람회’(이하 박람회)가 전북 김제 민간육종연구단지 일원에서 ‘씨앗, 미래를 바꾼다’라는 주제로 막이 올랐다.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종자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해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전북도, 김제시가 주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주관,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열린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박람회는 전년도 ‘씨앗, 내일을 품다’에 이어 ‘씨앗, 미래를 바꾸다’를 주제로 선정하고, 산업박람회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전시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업 해외바이어 유치 활동을 더욱 강화했다. 이번 박람회는 주제관, 산업관, 체험관, 전시포 및 전시온실로 구성되어 종자산업 관련 기업들이 비즈니스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 관람객들에게는 종자산업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산업관은 국내의 종자기업의 품종 및 종자산업 전후방 기업의 제품 소개와 더불어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60여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이다. 종자수출 확대를 위해 KOTRA(대한 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력하여 20여

명의 신규 해외바이어를 발굴하고 ‘수출상담회&비즈매칭’을 통해 참여 기업과 교류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지난해 이곳에서 개최된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의 경우 34억원 규모의 종자수출 계약을 성사시켜 종자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올해의 경우 약 50여명의 종자수출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국제종자박람회가 개최되는 민간육종연구단지는 전북 혁신도시 농생명 연구기관을 비롯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 정읍 방사선 육종연구센터 등과 연계한 종자산업의 메카로서 아시아 농생명산업의 핵심 기지로 육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서학동예술촌 빗물시범마을 조성 ‘첫 삽’ 뜬다

전주시, 이달 중 착공키로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버려지는 빗물을 재이용하는 서학동예술마을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을 본격화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고 가꾸는 ‘서학동예술촌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의 설계를 마무리하고, 이달말 공사에 착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에 따르면 서학동예술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한 빗물이용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환경부가 국가예산을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마을단위 주민참여형 빗물자원의 사업으로, 시는 총 3억원에 투입해 서학동 2동~4동 건물 34개소에 빗물이용 시설과 관련시설을 구축하고 친환경 대체수자원인 빗물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물 순환체계를 회복시키는 사업이다. 시는 빗물이용 시범마을의 성공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서학동예술마을 내 단독주택 15개소와 다세대주택 2개소, 근린상가 16개소, 어린이집 1개소, 관공서 1개소 등 총 34개 건물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로, 시는 참여 주민들의 신청과 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한 설계를 완료했다. 대표적으로, 시설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시설인 빗물이용시설(빗물저금통)의 경우 34개소 가옥과 건물에 1개소당 평균 저장용량 1톤, 총 35톤 규모로 구축돼 조경과 화단, 텃밭, 옥상녹화, 벽면녹화, 청소, 세탁(세탁), 화장실, 마당살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예정이다. 마량이 콘크리트포장 등 불투수면으로 이뤄진 일부 가옥의 경우 투수성 블록과 감자갈 등 빗물침투시설을 설치해 빗물의 외부유출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서학동예술마을 중심부에 위치한 서학동출소에는 주차장 여유 부지를 활용해 아담한 소형 빗물정원을 조성, 빗물마을 홍보·교육 및 견학체계에 필요한 공간으로 제공한다. 시는 이곳에 내열·내열·내침수성이 강한 토종 초화류와 조경수를 식재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수동형 우물펌프(작두펌프)와 등의자와 그늘막 등 휴게 시설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빗물이용에 대한 이해와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시는 올 연말까지 빗물이용시설과 빗물관리시설(빗물 침투시설·저류시설) 등 하드웨어 구축을 완료한 뒤 내년부턴 견학체험 시설장 운영으로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 어린이와 학생 등 방문객에게 직접적인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동시에, 빗물시설 전문업체와 1시간 자매결연을 통한 ‘빗물주치의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시범마을 주민들이 빗물이용시설을 사용하는데 어려움과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기술 및 교육을 지원하고, 주민협의체 정례회를 개최해 시설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 빗물공동체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권혁신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연내에 차질 없이 준공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내실 있게 운영토록 만들어 서학동예술마을이 문화예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버려지는 빗물을 자원화하고 이용하는 자율적 관리역량과 기후변화 대응력을 겸비한 혁신적 마을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하림 greeners
:그리너스

하림 동물복지닭 그리너스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사람들

동물복지 (ANIMAL WELFARE)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